



Analyst. 손지우 / 3773-8827, jwshon@sk.com

드디어 나온 사우디 4월 증산說

▶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가 4월부터 증산을 시작할 것이라 보도. 상황에 따라서는 3월부터도 가능. 사우디가 재차 M/S 전쟁을 시작한다면 유가상승에 큰 제약요소가 될 수 있는데, 결국 4월 OSP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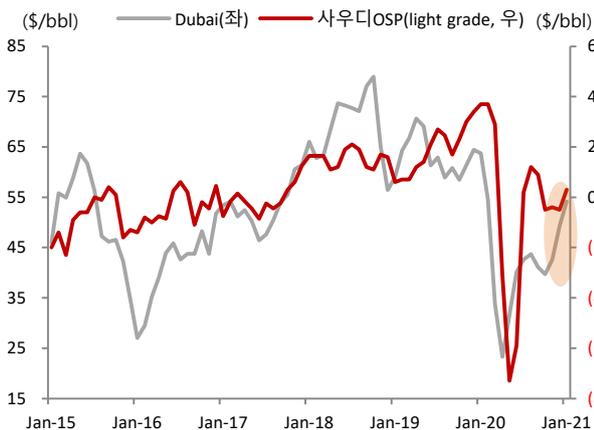
적극적 감산정책의 사우디, 드디어 증산?

"사우디, 4월에 증산한다" WSJ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략) 사우디는 당시 OPEC+ 회의에서 결정된 산유량 쿼터와 관계없이 2월과 3월 하루 100만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다. (중략) OPEC 관계자들은 다음달 4월 회의에서 OPEC+가 증산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각자 생산 쿼터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증산은 그러나 사우디가 앞서 3월까지 감산을 하겠다고 약속한 터라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소식통들은 상황이 바뀌면 사우디의 이같은 결정 역시 다시 뒤집어질 수 있고, 사우디가 아직은 OPEC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하략)

자료 : 파이낸셜뉴스(2021년 2월 18일), SK증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우디OSP와 유가의 동행성



자료 : Bloomberg, SK증권

- 장기 저유가 국면이 점점 마무리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담되는 요소는 상존한다고 누차 말씀 드린 바 있죠. 그런데 어제 이를 확인시켜주는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 OPEC의 실질적 수장인 사우디가 4월 증산을 검토한다는 군요
- 일단 사우디 공식발표는 아니고, 사우디에 정책 자문을 하는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고, 3월 4일 OPEC+ 회의부터는 일부 산유국의 생산쿼터 상향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사우디는 4월까지 감산 100만b/d의 약속이 있기에 당장에 변화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말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군요
- OPEC+의 적극적 감산은 지금까지 유가부양의 큰 요소였기에, 이 소식은 반대급부로 하락압력이 충분히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갑자기 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사우디의 증산정책은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연한 방향성이긴 합니다
- 지금까지 치킨게임과 M/S전쟁이 1970년 이후 사우디의 기본 정책이었고, 감산정책을 잘 지키지도 않아 왔었기 때문이죠
- 그리고 당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다시 60달러 선을 넘어섰기에, 증산여력이 충분한 사우디로서는 다시 한 번 수익 및 M/S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여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 그렇다면 사우디의 의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아마 2주 후쯤 발표될 OSP가 가장 유력한 지표겠죠? OSP를 만약 인하로 선회한다면 사우디의 M/S 전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 사우디의 현재 산유량은 800만b/d 내외입니다. 코로나 충격 이전에는 1,230만b/d에 이르렀었구요. 현재 미국의 산유량은 1,100만b/d. 사우디가 작정한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요소가 될 겁니다. 간만에 사우디의 산유량 정책에 큰 관심이 쏠리겠네요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권한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